

하다. 왜냐하면 프란초스는 <근거있는 이유>⁵⁷⁾를 들어 『검찰관』의 극본을 반송하게 했기 때문이다. 1878년 10월에는 주지하다시피 「사회주의 탄압법 Sozialistengesetz」이 독일의 제국의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시행초기에는 법적용이 엄격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이 오스트리아에도 여파를 미쳤을 것이라는 추측도 어렵지 않다. 검열당국이 언론통제에 보다는 공연예술의 검열에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실도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다. 작품의 <고상한 기품> 때문에 지속적인 관객유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끼워넣기 공연>을 염두에 두었던 극장장 라우베는 그 사이에 공연일자와 배역도 이미 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1878년 12월 1일자 라우베의 서신이 이러한 추정을 확인해 준다.

귀하의 원에 따라 여기에 『검찰관』의 대본을 되돌려 보냅니다. 하지만 출연진을 고려하여 공연일자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의 근거있는 이유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Ihrem Wunsche gemäß anbei Ihr Exemplar des „Revisors“. Allerdings war der Tag der Aufführung bereits für das Personal bestimmt; ich muß aber Ihren guten Gründen willfahren[...]⁵⁸⁾

1878년 겨울시즌을 목표로 했던 『검찰관』의 공연계획이 무산된 데 대한 이유를, 당시 서로 경쟁관계에 있던 빈 「시립극장」과 빈 「궁정극장」간의 - 고골리의 희극의 초연권을 둘러싼 - 다툼에서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시립극장장 하인리히 라우베와 궁정극장장 뉅엘슈테트 Franz von Dingelstedt 사이의 개인적, 업무적 갈등이 후자로 하여금 오스트리아의 국립극장격인 「궁정극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 그것도 다른 아닌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던 빈 「시립극장」에서 - 고골리의 대표작이 초연되는 것을 방관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이다.⁵⁹⁾ 그리하여 궁정극장장 프란츠 폰 뉅엘슈테트는 『검찰관』의 초연권을 「시립극장」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프란초스의 대리인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관』의 시나리오를 「시립극장」으로부터 회수케 했다는 것이다.⁶⁰⁾ 1878년 빈 「시립극장」에서의 『검찰관』 공연계획이 좌절된지 9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고골리는 합스부르크제국의 수도인 빈에서의 초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공연은 프란초스가 아닌 다른 사람의 번역으로 「시립극장」이 아닌 「궁

57) Siehe Laubes Brief an Franzos vom 1. Dezember 1878.

58) I. N. 64. 752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Laube an Franzos, datiert: Wien, 1. Dezember 1878.

59) 빈의 「시립극장」은 - 1849년~1867년까지 18년간 「궁정극장」의 장을 역임한 바 있는 - 하인리히 라우베에 의해 1871년에 창립되었으며, 라우베는 그 후 1879년(단 1874~1875년은 제외)까지 이 극장의 경영을 맡았다. 프란츠 폰 뉅엘슈테트는 1870년 이후 빈의 「궁정오페라 Hofoper」와 「궁정극장」의 장을 겸임했었다.

60) Hans Rüdiger Schiferer: Die Geschichte des Wiener Stadttheaters 1872~1884. Phil Diss. Wien 1967. S. 212f.

정극장」에서 이루어졌다.

4

「빈 시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프란초스의 유고목록에 들어 있는 ‘공연계약서’에 의하면 프란초스의 첫 희곡 『재판장』은 1891년 5월 14일자로 베를린의 「레싱극장」에 - 오스카 블루멘탈 Oskar Blumenthal(1852~1917)에 의해 창립된 이 ‘젊은’ 극장은 레싱의 『현자 나탄 Nathan der Weise』을 개막극으로 하여 1888년 9월 11일에 문을 열었다 - 의해서 채택되었다. 드라마작가 프란초스와 극장장 블루멘탈이 각각 서명한, 총 12개항목으로 구성된 서한형식의 이 공연계약서는 본 논문에 인용된 모든 다른 수고(手稿)와 그 출처가 동일하며 「빈 시립도서관」의 허락으로 열람과 복사가 허가되었음을 이 기회에 밝힌다.⁶¹⁾ 공연은 1891년 9월말에서 10월초 사이에 있었으며 관객을 압도할 만한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다. 첫 공연을 관람한 극작가 겸 극평론가였던 루드비히 풀다 Ludwig Fulda가 『재판장』의 저자에게 쓴 1891년 10월 6일자 편지는 이 작품의 공연성과를 암시하고 있다. 드라마는 문학의 여타 장르와는 달리 공연예술이어서 공연의 현장에 참석할 수의 <관관>들에 의해 심판을 받으므로, 프란초스처럼 <독일민족 전체가 인정하고 찬미하는 소설가ein von der ganzen deutschen Nation anerkannter und gefeierter Romanschriftsteller>⁶²⁾라 할지라도 드라마작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아기의 <증병>은 누구이든지 간에 경험해야 하는 과정이라고 풀다는 역설한다.

당신의 첫 드라마와 관련하여 지금 당신은 무대로 향한 첫 걸음이 거의 언제나 가져다 주는 증병을 철저히 앓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자주 내가 그병을 다시 앓아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무대의 성공이 크든 작든 간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오물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지금까지는 온건하고 침착한, 대체로 짐작고 품위있는 어조의 서평에 익숙해 있을터이니까, 극작가를 끌어들이 벌이는 난전(亂戰)에다가 머리 주위로 날아오는 이상스러운 무기를 처음으로 보았을 때 당신이 현기증을 약간 느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에 얻어맞아 상처를 입지 않더라도, 대개 항복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럴 것이 대체적으로 여기에 사용되는 것[=무기]은, 로엔그린과의 싸움에 프랑스 예술관관들이 사용했던 것과 같은 악취탄의 어떤 변종이니까요. 당신이 기분나쁜 것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문학적 입장이 정말로 그것으로 인한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잊어버리고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아니라면 신문지상을 통해 이미 모욕을 당해보

61) 칼 에밀 프란초스의 유고인용에 관한 언급은 「빈 시립도서관」의 요청에 의한 것임.

62) Siehe I. N. 64. 484 der HWSLB: Brief von Ludwig Fulda an Franzos, datiert: Frankfurt, 6. Oktober 1891.

지 않은 생존 극작가의 이름을 한 명이라도 대보십시오. 나는 한사람도 알지 못합니다. 벨덴브루흐, 주더만, 하우프트만은 물론이고, 슈필하겐, 하이제, 벨브란트와 같은 최고참 명사들까지 - 그들 모두 때에 따라서는 범죄인이거나 깡패라는 낙인들이 찍혔더랬습니다. 내 친구 주더만은 『소돔의 최후』를 겨냥한 비평가들의 호전적 공격을 받은 후유증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율병(鬱病)을 여러 달 겪다가, 드디어 그것을 털어버리고 난 후에도 당분간 극작품 집필의 의욕을 잃었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확실하게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모두 하겠어요? 당신이 예의 비평전(批評戰)에 당신이 가지지 않은 것은 부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당신이 예의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맞서 코끼리 가죽을 - 그것 없이는 오늘날의 극작가들이 단 한번도 산책을 할 수 없습니다 -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당신은 독일민족 전체가 인정하고 찬미하는 소설가로서 지금까지 당신에게 낯설었던 분야를 향해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당신은 산문작가의 알껍질을 아직 완전히 벗지 않은 채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소설을 각색했습니다. 그 작품은 무난한 성과를 거두어, 중요한 큰 일간지는 어디에서나 정중한 어투로, 다수의 일간지에서는 심지어 따뜻한 찬사의 평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새 소설을 쓰면, 감동받은 독자를 단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새 드라마를 쓴다면 모든 극장장들이 그것을 즉각 읽고 성공이 보장될 경우, 즉각 상연할 것입니다. 당신이 블루멘탈에 의지한 것이 잘못입니다. 작품이 좋으면 - 극장장들의 느낌에서 좋으면 - 누구든지 그것을 채택합니다. [...] 이 작품을 공연해 줄 무대는 상당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지방에서 더 큰 히트를 침으로써 의외의 기쁨을 누릴지도 모릅니다. 베를린의 초연관객, 이 1200명의 각양각색의 잡다한 판관들을 드라마작품을 판단하는 유일무이한 최종 심판관으로 임명하려 든다면, 그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부당행위일 것입니다.

In Bezug auf Ihr erstes Drama machen Sie nun gründlich die ganze schwere Krankheit durch, welche der erste Schritt auf die Bühne fast immer mit sich bringt. Auch ich habe sie durchgemacht, und wer weiß, wie oft ich sie noch wieder durchmachen muß. Denn wie groß oder klein ein Bühnenerfolg auch sei, an Leuten, die einen bei dieser Gelegenheit mit Schmutz bewerfen, fehlt es niemals. Es ist erklärlich, daß Sie - bisher an die ruhige, leidenschaftslose und meist im Ton anständige und würdevolle Buchkritik gewöhnt - ein wenig schwindeln beim ersten Anblick des Schlachtgetümmels, in das der Bühnendichter hineingeschleudert wird, und der seltsamen Waffen, die einem dabei um den Kopf fliegen. Wenn man auch nicht davon verwundet wird, übergeben muß man sich meistens. Denn es handelt sich dabei meistens um irgend eine Spielart der Stinkbomben, wie französische Kunstrichter sie zum Kampfe gegen Lohengrin verwandten. Die Übelkeit konzedierte ich Ihnen, mehr aber nicht. Denn wenn Sie wirklich glauben, daß Ihre literarische Stellung darunter ernstlich leiden könne, dann müßten Sie verlernt haben, um sich zu blicken. Oder nennen Sie mir irgend einen lebenden Bühnendichter, der nicht bereits in den Zeitungen verhöhnt war;

ich weiß keinen. Wildenbruch, Sudermann, Hauptmann ebenso wie die ältesten Renommées⁶³⁾, wie Spielhagen, Heyse, Wilbrandt - sie alle sind bei Gelegenheit als Verbrecher oder Bengelmänner gekennzeichnet worden. Mein Freund Sudermann hat in der Folge der kritischen Feldzüge gegen "Sodoms Ende" die tiefste psychische und physische Depression Monate lang empfunden, und nachdem er sie endlich abgeschüttelt hat, erklärt er, vorerst die Lust zur Bühnenschriftstellerei verloren zu haben. Und der hat doch gewiß Erfolge gehabt!

Warum ich das Alles sage? Damit Sie jenen kritischen Klopfchtereien nicht zulegen, was Sie nicht besitzen[...]. Damit Sie jenem Pfeilregen zum Trotz sich die Elefanten-Haut anschaffen, ohne die ein moderner Dramatiker nun einmal nicht spazieren gehen kann. [...] Sie haben als ein von der ganzen deutschen Nation anerkannter und gefeierter Romanschriftsteller sich zum ersten Male auf ein Ihnen bisher fremdes Gebiet begeben, Sie haben es getan, indem Sie die Eierschalen des Epikers noch nicht ganz abstreifen, d. h. einen Roman dramatisiert. Das Stück hatte einen Achtungserfolg, der in den großen maßgebenden Tagesblättern überall im Tone des Respekts, in vielen sogar mit warmem Lob besprochen wurde. Schreiben Sie einen neuen Roman, so werden Sie nicht einen einzigen anständigen Leser weniger haben; Schreiben Sie ein neues Stück, so wird jeder Theaterdirektor es umgehend lesen und umgehend aufführen, falls er sich davon Erfolg verspricht. Es ist einfach Unsinn, daß Sie auf Blumenthal angewiesen sind. Ist das Stück gut - gut im Sinne der Theaterdirektoren - so nimmt es jeder. [...] Es werden sich aber sicher eine Anzahl Bühnen finden, die es aufführen, und vielleicht werden Sie aus der Provinz noch durch stärkere Erfolge überrascht. Es wäre einfach Ungerechtigkeit gegen sich selbst, wollte man das Berliner Premierien-Publikum, diese zwölfhundert sehr gemischten und gesprenkelten Richter, zum einzigen und endgültigen Areopak über ein dramatisches Werk ernennen.⁶⁴⁾

『권리를 위한 투쟁』(소설)과 『재판장』(소설/희곡)은 모두 침해당한 법감정을 테마로 삼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자에서 주인공 타라스 불바는 권리를 침해당한 농민들을 대변한 몰아적인 권리의 수호자로 등장한다. 후자는 법해석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감 때문에 파멸하는 현직법관의 내면적 갈등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합스부르크제국의 명문귀족가계 출신의 법관인 제국남작 쟈들링엔 Reichsfreiherr von Sendlingen은 영아살해혐의로 법정에서 선 한 젊은 여인이 우연히도 청년시절 시 민계급 처녀와의 첫사랑에서 태어난 자신의 친자임을 확인하게 된다. 이 여인의 범행

63) 형용사 renommé의 복수명사형임.

64) Fuldas Brief an Franzos vom 6. Oktober 1891.

은 그러나 '책임무능력 Zurechnungsunfähigkeit' 상태에서 저질러졌기 때문에, 이 여인에 대한 유죄는 '사법적 살인 Justizmord'에 다름아님을 판단한 재판장은 황제에게 사면을 청하기 위해 빈으로 길을 재촉한다. 공교롭게도 바로 이 날 황제피습사건이⁶⁵⁾ 발생하여 쟈들링엔은 부코비나 Bukowina의 임지로 급거 귀환한다. 직권으로 여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뒤 그는 법무장관에게 자수한다. 사법부의 명예실추를 우려한 장관은 사건을 불문에 부치려고 하지만 남작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신의 법해석에 상응하려고 한다.

법감정에 입각한 자의적인 법해석이 미화되는 무대라는 비난의 화살이 빗발쳤지만 이 작품이 빈에서 소설로 발표되었을 때만 해도 『재판장』은 독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단행본으로 출간되기 전인 1883년 여름과 가을 사이에 이미 빈과 베를린 그리고 페터스부르크의 유력 일간지에 각각 연재되었다.⁶⁶⁾ 1883년 11월 3일에 『재판장』의 초판이 발행되었고 한달 후인 1883년 12월 10일에 벌써 제2판이 인쇄되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제2쇄가 발행된 시기와 때를 같이 하여 이 소설은 네덜란드어와 덴마크어로 번역되었다는 사실이다. 네덜란드어 번역본은 헤이그 Den Haag의 벨린판테 Belinfante사에 의해 1883년 12월 17일에 출판되었고, 덴마크어 번역판은 같은 해 12월 26일에 코펜하겐의 샤푸테 Schabote사에 의해서 발행되었다.⁶⁷⁾

드라마 『재판장』이 「레싱극장」 이외의 다른 어떤 극장에서 공연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그의 유고에는 위에 인용된 편지에서 폴다도 권하고 있듯이 베를린이 아닌 다른 도시에서 이 작품을 공연하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란츠가 프라하의 「왕립독일국립극장 Königliches Deutsches Landestheater」과 문통(文通)한 자료가 발견되었다. 이 극장의 문예부장 하인리히 테벨레스 Heinrich Teweles는 1892년 9월 1일자 서한에서 프라하의 검열당국이 『재판장』의 공연을 불허한다고 프란츠에게 통보한다. 베를린에서는 이 작품이 그런대로 공연될 수가 있었지만, 방대한 지역을 속령으로 지배하고 있는 오스트리아제국에서 - 그것도 제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속령인 뫼헨 Böhmen의 수도 프라하의 무대에서 - 대제국의 법통의 상징인, 황제가 임명하는 법관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내용의 드라마가 당국의 정식허가하에서 공연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다.

65) 1853년 2월 18일 직업이 견습재단사인 헝가리인 청년 요한 리베니 Johann Libeny에 의한 프란츠 요셉 1세 Franz Joseph I (재위기간: 1848~1916) 오스트리아 황제피습사건이 발생했다.

66) "Berliner Tageblatt" vom 6. Juli bis 5. August 1883; "St. Petersburger Zeitung" vom 1. August bis 27. November 1883; Wiener Konstitutionelle Vorstadt-Zeitung vom 24. Juni bis 21. August 1883.

67) Siehe I. N. 55. 768 der HWSLB: Eigenhändige Bibliographie, S. 15. 이 소설의 덴마크어 번역판은 빈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도서기호 : I 496. 454).

제가 염려했던 것이 적중했습니다. 검열당국이 귀하의 『재판장』의 공연을 불허했습니다. 어떤 항의를 해봤자 성과가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서면으로 통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허가하는 경우에만 교부됩니다. 경찰이 선생님 개인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서 선생님의 다음 번 희곡의 공연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Was ich gefürchtet habe, ist eingetroffen: die Censurbehörde hat die Aufführung Ihres "Präsidenten" nicht genehmigt; es ist auch ausgeschlossen, daß eine etwaige Reklamation von Erfolg begleitet wäre. Einen schriftlichen Bescheid haben wir nicht erhalten, ein solcher wird eben nur im Falle der Genehmigung herausgegeben. Hoffentlich hat die Polizei keinen persönlichen Haß gegen Sie und hindert uns nicht, mit Ihrem nächsten Stück zu kommen.⁶⁸⁾

5

동명소설에서 각색된 드라마 『그림자들』은 인쇄된 기록도, 공연된 기록도 없이 필사본 상태로 보존되어 있으며 이 필사본은 3종류의 초고 - 제1초고 Handschrift 1, 제2초고 Handschrift 2, 제3초고 Handschrift 3 - 로 구성되어 있다. 제1초고(H1)⁶⁹⁾는 표제지를 포함하여 총 25면에 달하며, 1면은 25행으로 되어 있는 미완성원고Manuskriptfragment로서 『베르네크가(家) Das Haus Werneck』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2초고(H2)⁷⁰⁾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제1초고(H1)를 확대 발전시킨 것으로 보이며, 『베르네크가』에서 『그림자들』로 개제된 제목을 붙이고 있으나 3막으로만 구성된 미완성 원고이다. 필자가 텍스트구성을 위한 자료로 택한 필사본인, 제3초고(H3)⁷¹⁾는 드라마의 생성사와 관련시켜 볼 때 이 드라마의 가장 완벽한 텍스트를 담고 있는 원고로 판단된다. 전체 4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제3초고(H3)는 261면에 달하는 8절지크기Oktavformat의 원고지에 청서되어 있다. 면당 21행의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는 제3초고(H3)는 필사자(筆寫者)에 의해 청서된 후에 프란초스 자신이 수정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 제2초고(H2)역시 제3자에 의해 필사되어 있으나 그 상태는 제3초고에 비하면 매우 난잡한 편이다. 이에 반해 제1초고(H1)는 처음부터 끝까지 프란초스의 필적

68) I. N. 111. 387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Teweles an Franzos, datiert: (Prag), 16. September 1892.

69) I. N. 114. 471 der HWSLB: Eigenhändiges Manuskriptfragment eines Dramas, undatiert, betitelt: "Das Haus Werneck". Umschlag+24 Seiten.

70) I. N. 63. 396 der HWSLB: Manuskript von fremder Hand, enthält nur drei Aufzüge (Zubetitelt: Die Schatten). 132 Seiten (66 Blatt).

71) I. N. 63. 395 der HWSLB: Manuskript von fremder Hand mit eigenhändigen Korrekturen. Zubetitelt: Die Schatten. Drama in vier Akten. 261 Seiten(261 Blatt).

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제1초고와 제2초고에 사용된 원고지는 4절지 Quartformat와 8절지의 중간크기 Zwischenformat에 해당된다.

드라마 『그림자들』은 『재판장』의 생성과정을 답습하여 1888년 슈투트가르트에서 나온 동명소설을 희곡으로 개작한 것이다. 개작의 시기는 몇 가지 간접증거를 통해 추정해 보면, 프란츠스가 그의 첫 희곡 『재판장』의 공연계약을 베를린의 『레싱극장』과 체결한 1891년 5월 이후에 착수되어 1892년 초 사이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추정은 루트비히 풀다가 프란츠스에게 보낸 1891년 8월 31일자 편지와 1891년 10월 6일자 편지의 내용에 근거한다.

당신이 당신의 새 드라마를 아직도 끝내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어리둥절하군요 - 하기가 드라마 한 편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 자체가 결코 비정상인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당신은 전에는 속사식 창작으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Mich erstaunt es zu hören, daß Sie Ihr neues Drama noch nicht abgeschlossen haben - obwohl es ja an und für sich keineswegs abnorm ist, daß man zu einem Stück mehrere Monate braucht. Sie haben uns nur durch das Schnellfeuer Ihrer Produktion in dieser Hinsicht an das Unglaubliche gerührt.⁷²⁾

[...] 당신의 새 드라마가 크리스마스때에 완성되면 틀림없이 이번 시즌을 놓치지 않고 공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2월이나 3월 초에 말입니다.

[...] wird Ihr neues Stück zu Weihnachten fertig, so kann es ganz entschieden noch in dieser Saison aufgeführt werden - im Februar oder Anfang März.⁷³⁾

<속사 Schnellfeuer>식으로 작품을 쓰지 않았느냐는 풀다의 반문은 프란츠스의 산문작품이나 에세이 따위의 집필속도를 염두에 둔 표현이었음이 명백하다. 풀다의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면, 평시의 창작속도에 비해 프란츠스는 너무 많은 시간을 한편의 희곡을 완성하는데 소비하였다. 이는 아마도 그의 첫 드라마의 공연결과가 그로서는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번째 드라마의 완성에 지나친 공을 들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작품을 이미 완성해 놓고도 공연과 출판을 미루었던 것일까? 동명소설과 비교하여 드라마는 내용상의 차이를 거의 드러내지 않는다. 다만, 총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의 스토리 중에서 드라마에 적용된 것은 15개의 장이다. 제1장과 제17장이 드라마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음의 사건진행의 요약에서도 알 수

72) I. N. 62. 683 der HWSLB: Brief von Ludwig Fulda an Franzos, datiert: Frankfurt, 31. August 1891.

73) Siehe I. N. 64. 484 der HWSLB.

있듯이 드라마에 적용되기에 적합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디트리히 Dietrich 백작은 60회 생일을 맞아 여러 축하객들과 함께 게오르크 폰 테른슈타인 Georg von Thernstein 남작을 초대한다. 질녀 헬레네 Helene가 사랑하고 있는 남작을 그녀와 짝지워 주기 위함이다. 그런데 디트리히 백작은 30세 연하의 아내 소피 Sophie의 일기장을 통해, 아내가 한번도 그를 사랑한 적이 없고, 언제나 처녀시절의 사랑만 생각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름은 거명되지 않고 있다. 몇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게오르크가 소피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을 그는 밝혀 낸다. 일찍이 어머니를 잃은 소피는 모친의 종자매이자 게오르크의 어머니인 아그네스 Agnes 남작부인의 보살핌을 받으며 게오르크와 같은 집에서 성장한다. 6살 손위였던 게오르크는 소피의 놀이친구이자 보호자였고, 동시에 선생님이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소피의 부친 란첸베르크 Guido von Lanzenberg 남작에 의해 지속되지 못한다. 게오르크는 장래에 장인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는 금전적 요구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기도박꾼인 아버지를 따라 소피는 전 유럽을 떠돌게 된다. 그러나 그녀는 그 사이에 게오르크가 그녀를 잊어버리고 이미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상상에 도달하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 버린다. 아버지는 거액을 받고 난폭자이고 난봉꾼이라는 나쁜 평판에다가 나이마져 30년이나 연상인 디트리히 백작에게 딸을 주어버린다. 게오르크가 소피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그녀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소피는 결혼 직후에 비로소 알게 된다. 소피는 그 이후 제정신을 잃고 남편을 경원하기 시작하고, 디트리히 백작은 그에 대한 보복으로 아내를 괴롭힌다. 소피의 대답을 얻기 위해 디트리히 백작의 생일잔치에 초대받아 온 게오르크의 모습을 8년 만에 처음으로 보는 순간 소피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실신한다. 정신을 차리기를 기다린 백작은 아내에게 사실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녀를 괴롭힌 것은 단지 질투심에서였음을 고백한다. 그녀가 자유의사로 그를 남편으로 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사실도 고백한다. 딸을 강제로 떠맡기게 하지 않도록 소피의 부친에게 결혼과는 무관한 종신 연금을 약속했던 사실도 고백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남편의 관대함에 감동된 소피는 게오르크의 청혼을 거절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게오르크의 선택을 질녀 헬레네에게 돌리려고 그를 만난다. 그러나 아내의 의도를 오해한 디트리히 백작은 게오르크에게 결투를 신청한다. 백작이 살인자가 되려는 순간 그는 자신의 총복 한스 프리딩어 Hans Friedinger에 의해 사살된다. 몸을 버렸다고 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내몰았던 옛 약혼녀 한나 Hanna Buregger가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이 섬기던 백작에게 능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나가 자살한 후 절망에 빠진 한스를 백작이 더 큰 애정으로 돌봐 준 이유는 진실이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다.

드라마에서 제외된, 소설 『그림자들』의 제1장에는 도입부의 역할을 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국경도시 빌라흐 Villach에 주둔한 민병대의 장교단이 60회 생일을 맞이한 디트리히 백작에게 생일선물로 감사장을 전달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물론 민병대

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소설의 제17장은, 백작이 죽은 후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소피는 옛사랑 게오르크와 헬레네의 약혼을 주선하고 자기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일생을 바친다는, 드라마에 채택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조상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재판장』은 사건진행의 시간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복잡적이다. 그에 반해 『그림자들』의 사건은 단 하루 동안에 완성되는 매우 축약된 시간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 하루 동안에 평상적으로는 만나기 힘든, 일련의 감정이 실린 사건들이 서로 완벽한 인과관계의 틀 속에서 진행된다. 아내의 사랑없음에 대한 백작의 허탈감, 아내의 옛사랑의 정체확인, 이 남자의 출현과 백작(부인)의 격렬한 반응, 밝혀지지 않았던 과거들의 극적인 노출, 결투신청, 하인 한스에 의한 백작의 죽임 등과 같은 사건들이 콘베이어에 의한 부품공급처럼 막힘없이 발생하여 진행된다.

전체 4막 중에서 3막이 디트리히 백작의 서재에서 진행되고, 백작과 백작부인이 가장 빈번하게 무대위에 모습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전통비극에서처럼 뚜렷이 부각되는 주인공은 이 드라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주인공의 역할은 여러 중심인물들 속에 분산되어 나타난다. 무대등장의 빈도에 따라 순서를 메기면 디트리히 백작과 그의 아내 소피, 테른슈타인 남작, 그리고 백작의 하인 한스가 모두 주인공군(群)에 속하는 인물들로 간주될 수 있다. 사건진행의 마지막 단계인, 이 중심인물들 중의 한사람의 죽음, 다시 말해 백작의 죽음은 그래서 대단원으로 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이 죽음 혹은 죽임이 중심인물들 간의 갈등에서 야기된 죽음(죽임)도 아닐 뿐더러,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그에게 지워진 섭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내면적인 갈등을 느끼지 않은 백작의 죽음은 받아 마땅한 죽음이다. 그의 죽음은 사건의 진행을 역전시키는 ‘전회 Peripetie’도 아니고 더우기 관객을 카타르시스로 연결시킬 수도 없다. 백작과 그의 하인 한스 간의 갈등에 유의하면 - 특히 백작이 이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 이 드라마를 <시민비극 bürgerliches Trauerspiel>의 범주에 넣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백작의 죽음은 정화작용으로 이어지기는 커녕 사건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그럴 것이 막이 내려진 후에도 이 드라마의 사건진행은 또 다시 미해결의 장으로 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예의 새로운 삼각관계, 게오르크가 옛사랑 소피와 새로이 등장한 구애자 헬레네 사이에 서야 하는 ‘이상적인’ 삼각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거의 완벽한 형식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미 소설 『그림자들』에서도 무대의 여건에 적합한 여러가지 요소들, 예컨대 조밀한 구성이라든가 극적인 긴장감이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이 그대로 무대위로 옮겨졌을 때에도, 독자 대신 한정된 공간의 한정된 관객들이 ‘동정 Mit-leiden’할 수 있는 믿음울 불러 일으킬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완벽한 인과율에 따라 서로 물고 물리는 사건의 여러 상황들은 바로 그 완벽성 때문에 인위적으로 짜 맞춘 듯한

인상을 남길 수가 있다. 그리하여 관객들은 사건의 전개가 자연스러운 믿음을 불러 일으키기에는 너무 ‘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심사숙고하게 된다. 완벽한 알리바이가 바로 그 ‘완벽성’으로 인해 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듯이 말이다.

이 작품의 해독과 더불어 ‘드라마 작가로서의 프란초스’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려고 하는 현시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지난 세기말 자연주의 문학 혹은 자연주의 작가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여전히 문단의 다수견해를 지배하던 때 스스로를 ‘하우프트만 찬미자’로 자칭했던 프란초스가 정작 자신의 작품으로부터는 왜 멜로 드라마적인 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을까하는 점이다. 그는 예컨대 그의 작품을 그 시대의 사회적 현실과 결부시키고 등장인물들을 더 큰 정신적 갈등에 직면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이 개인적인 애정관계의 차원에만 머물지 않도록 등장인물들을 초시대적 갈등구조 속에 재배치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같은 시기에 하우프트만의 『직조공들 Die Weber』(1892)이 공연된 사실을 감안한다면, 프란초스는 등장인물들의 갈등을 사회와 관련한 차원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하면 무대스캔들을 즐기는 관객들과 더불어 진보적 성향의 극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창립되고 또 젊은 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학단체들과 동인들이 활발하게 결성되던, ‘불안’한 생동감이 넘쳐흐르던 세기말시대 한 가운데서 보수문학의 기수로 자처하려 했던 프란초스의 태도는 다른 시각에서의 평가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우프트만을 찬미하면서도 빌덴브루흐를 무능한 작가로 여기지 않는다”는 프란초스의 고백이 이러한 평가의 개연성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Benutzte Literatur

1. Aus den Druckschriften

Brümmer, Franz: Lexikon der deutschen Dichter und Prosaisten vom Beginn des 19. Jahrhunderts bis zur Gegenwart. 6. völlig neubearbeitete und stark vermehrte Auflage. 8 Bde. Leipzig: Reclam 1913.

Büchner, Georg: Wozzeck. Ein Trauerspiel-Fragment. Mitgeteilt von Karl Emil Franzos. In: Mehr Licht! Eine deutsche Wochenschrift für Literatur und Kunst. Berlin. 1(1878), S. 5ff.

Büchner, Georg: Sämtliche Werke und handschriftlicher Nachlaß. Erste kritische Gesamtausgabe. Eingeleitet von Karl Emil Franzos. Mit Portrait des Dichters und Ansicht des Züricher Grabsteins. Frankfurt/M.: Sauerländer 1879.

Elbogen, Ismar u. Sterling, Eleonore: Die Geschichte der Juden in Deutschland.

- Eine Einführung. (Frankfurt): Europäische Verlagsanstalt (1966).
- Franzos, Karl Emil: Von Wien nach Czernowitz. Eine Kulturstudie im Fluge. In: Neue Freie Presse. Wien, 2. 10. 1875.
- Franzos, Karl Emil: Säkularfeier in Czernowitz. A. a. O.
- Franzos, Karl Emil: Aus Czernowitz. In: Fremden-Blatt. Wien, 3. 10, 1875.
- Franzos, Karl Emil: Die neue Universitätsstadt Czernowitz. In: Über Land und Meer 18(1875), S. 114f.
- Franzos, Karl Emil: Aus Georg Büchners Nachlaß. In: Neue Freie Presse. 3., 5. und 23. 11. 1875.
- Franzos, Karl Emil: Heine in Kärnten. Die Gegenwart. 18(1880), S. 248f.
- Franzos, Karl Emil: Florian Geyer. Deutsche Dichtung. 19(1895/1896), S. 200ff.
- Franzos, Karl Emil: Die versunkene Glocke. A. a. O. 22(1897), S. 54f.
- Franzos, Karl Emil: Fuhrmann Henschel. A. a. O. 25(1898/1899), S. 101ff.
- Franzos, Karl Emil: Schluck und Jau. A. a. O. 28(1900), S. 29ff.
- Franzos, Karl Emil: Michael Kramer. A. a. O. 29(1900/1901), S. 249ff.
- Franzos, Karl Emil: Gogol und Turgenjew. In: Deutsche Warte. 5. 3. 1896.
- Franzos, Karl Emil: Heines Geburtstag. Deutsche Dichtung. 27(1900), S. 113ff.
- Franzos, Karl Emil: Heine und die Mutter Meyerbeers. Mit einem ungedruckten Brief Heinrich Heines. In: Neue Freie Presse. 22. 11. 1903.
- Franzos, Karl Emil: Aus Halb-Asien. Kulturbilder aus Galizien, der Bukowina, Südrußland und Rumänien. 4. Auflage. Stuttgart u. Berlin: Cotta 1901 (1876¹).
- Franzos, Karl Emil: Die Juden von Barnow. Novellen. 1. Auflage. Leipzig: Hallberger 1877.
- Franzos, Karl Emil: Vom Don zur Donau. Neue Kulturbilder aus Halb-Asien. 2. gänzlich umgearbeitete u. vermehrte Auflage. Stuttgart u. Berlin: Cotta 1889(1878¹).
- Franzos, Karl Emil: Aus der großen Ebene. Neue Kulturbilder aus Halb-Asien. Stuttgart: Bonz 1888.
- Franzos, Karl Emil: Ein Kampf ums Recht. Roman. Breslau: Schottländer 1881.
- Franzos, Karl Emil: Die Reise nach dem Schicksal. Erzählung. Leipzig: Duncker u. Humblot 1885.
- Franzos, Karl Emil: Der Präsident. Drama in fünf Akten. Deutsche Dichtung. 13(1892), S. 191-198ff.
- Franzos, Karl Emil: Judith Trachtenberg. Erzählung. Breslau: Trewendt 1891.
- Franzos, Karl Emil: Mein Erstlingswerk: Die Juden von Barnow. In: Die

- Geschichte des Erstlingswerkes. Eingeleitet v. K. E. F. Leipzig: Titze 1994.
- Franzos, Karl Emil: Der Pojaz. Eine Geschichte aus dem Osten. Mit Bildnis. 13.-17. Auflage. Stuttgart u. Berlin 1920.
- Franzos, Karl Emil: Eine Auswahl aus seinen Schriften. Hrsg. v. Jenny Radt. Berlin: Schocken 1937.
- Geflügelte Worte. Der Zitatenschatz des deutschen Volkes. Gesammelt u. erläutert v. Georg Büchmann. Fortgesetzt v. Walter-Tornow. 21. Auflage. Bearbeitet v. Eduard Ippel. Berlin: Haude 1903.
- Krieg, Walter: Materialien zu einer Entwicklungsgeschichte der Bücher-Preise und des Autoren-Honorars vom 15. bis zum 20. Jahrhundert. Wien(u. a.): Stubenrauch 953.
- Lim, J. D.: Das Leben und Werk des Schriftstellers Karl Emil Franzos. Phil. Diss. Wien 1982.
- Lim, J. D.: Karl Emil Franzos als Lyriker. In Bezug auf seinen handschriftlichen Gedichtband "Jugendlieder". In: Dogilmunhak.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Germanistik. Bd. 34. Seoul 1984 (S. 341-372).
- Meyer, Hans: Georg Büchner und seine Zeit. Frankfurt/M.: Suhrkamp 1972.
- Schiferer, Hans Rüdiger: Die Geschichte des Wiener Stadttheaters 1872-1884. Phil. Diss. Wien 1967.
- Wilbrandt, Adolf: Von Angesicht zu Angesicht. Lustspiel in einem Aufzug. Deutsche Dichtung. 1(1886/1887), S. 21ff.
- Wilbrandt, Adolf: König Teja. Trauerspiel in fünf Aufzügen. A. a. O. 35(1903/1904), S. 14ff.
- Wittkowski, Georg: Büchners 'Woyzeck'. In: Inselschiff 1(1919/1920), S. 21ff.
- Zweig, Stefan: Die Welt von gestern. Erinnerungen eines Europäers. Frankfurt/M.: Fischer 1979.

2. Aus den Handschriften

- I. N. 55. 748 der HWSLB: Theatermanuskript, undatiert, betitelt: Der Revisor. Lustspiel in drei Akten. 137 Seiten.
- I. N. 55. 756 der HWSLB: Kopierbuch der Briefe von Franzos vom 30. 9. 1890 bis 3. 11. 1891. S. 75-80. Brief von Franzos an einen Unbekannten, datiert: 25. 10. 1890.
- I. N. 55. 760 der HWSLB: Kopierbuch der Briefe von Franzos vom 5. 2. 1895 bis

26. 8. 1896. S. 86.
- I. N. 55. 761 der HWSLB: Kopierbuch der Briefe von Franzos vom 28. 8. 1896 bis 6. 9. 1899, S. 392f. Brief von Franzos an Oppenheim, datiert: Berlin, 9. 2. 1899.
- I. N. 55. 767 der HWSLB: Eigenhändiges Honorarbuch von Franzos.
- I. N. 55. 768 der HWSLB: Eigenhändige Bibliographie.
- I. N. 59. 668 der HWSLB: Brief von Georg Ebers an Franzos, datiert: Tutzing bei München, 11. 7. 1893.
- I. N. 62. 105 der HWSLB: Brief von Hans Hopfen an Franzos, datiert: Berlin, 28. 4. 1876.
- I. N. 62. 394 der HWSLB: Brief von Eduard Engel an Franzos, datiert: Berlin, 6. 4. 1880.
- I. N. 62. 683 der HWSLB: Brief von Ludwig Fulda an Franzos, datiert: Frankfurt, 31. 8. 1891.
- I. N. 63. 395 der HWSLB: Manuskript eines Dramas. Zubetitelt: Die Schatten in vier Akten. 261 Seiten (261 Blatt).
- I. N. 63. 396 der HWSLB: Manuskriptfragment eines Dramas. Zubetitelt: Die Schatten. 132 Seiten (66 Blatt).
- I. N. 64. 484 der HWSLB: Brief von Ludwig Fulda an Franzos, datiert: Frankfurt, 6. 10. 1891.
- I. N. 64. 751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Laube an Franzos, datiert: Carlsbad, 28. 7. 1878.
- I. N. 64. 752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Laube an Franzos, datiert: Wien, 1. 12. 1878.
- I. N. 82. 613 der HWSLB: Brief von Franzos an Adolf Kohut, datiert: Wien, 31. 12. 1886.
- I. N. 111. 385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Teweles an Franzos, datiert: Prag, 15. 3. 1896.
- I. N. 111. 387 der HWSLB: Brief von Heinrich Teweles an Franzos, datiert: (Prag), 16. 9. 1892.
- I. N. 113.443 der HWSLB: Manuskript einer Übertragung eines Lustspiels von Alexander Graf Fredro aus dem Polnischen, undatiert, betitelt: Überfallen! 149 Seiten (77 Blatt).
- I. N. 113. 583 der HWSLB: Manuskriptfragment eines Dramas, undatiert, betitelt: Die heilige Einfalt. Schauspiel in vier Aufzügen. 86 Seiten (82 Blatt).
- I. N. 114. 471 der HWSLB: Manuskriptfragment eines Dramas, undatiert, betitelt:

Das Haus Werneck. Umschlag+24 Seiten.

I. N. 125. 820 der HWSLB: Brief von Henriette Goldschmidt an Franzos, datiert:
Leipzig, 16. 12. 1890.

■ Zusammenfassung

Karl Emil Franzos' Interesse fürs Theater und sein unveröffentlichtes Theaterstück “*Die Schatten*”

Jong-Dae Lim

Mit seinem ersten Buch “Aus Halb-Asien” von 1876 und seiner ein Jahr darauf veröffentlichten Novellensammlung “Die Juden von Barnow” konnte sich Karl Emil Franzos eine besondere Stellung vor allem in der Geschichte der deutschen Novelle im Zusammenhang mit dem Stoffbereich schaffen. Er hatte nämlich jenes bis dato den westlichen Lesern wenig bekannte ‘Halb-Asien’ für die deutsche Novelle entdeckt, und in seinen Werken konnte die Kunst der Schilderung dieses neuentdeckten Milieus künstlerisch am höchsten bewertet werden, ehe es eine literarische Diskussion über das Milieu und die Milieu-Theorie gab, worüber auch am Anfang dieses Aufsatzes einführungswise erwähnt wird.

Die Hauptaufgabe der vorliegenden Arbeit liegt darin, zu untersuchen, inwieweit der Ghetto-Schilderer Karl Emil Franzos aber auch als Theaterschriftsteller anzusehen ist. Zum Gegenstand der Untersuchung gemacht werden vor allem jene zwei Theaterstücke von Franzos, die der Nachwelt noch erhalten blieben: “Der Präsident” und “Die Schatten”. Wenn man ausschließlich die Struktur der beiden Stücke in Betracht zieht, umfaßt “Der Präsident” einen großen Handlungszeitraum und hat einen komplexen Charakter. Das Stück “Die Schatten” zeigt dagegen eine dichtgedrängte, an einem einzigen Tage ablaufende, sehr ‘dramatische’ Handlung. Das erstgenannte Stück ließ sich zu seiner Lebzeit aufführen und veröffentlichen, und das zweitgenannte existiert nur in handschriftlicher Fassung bei der Wiener Stadt- und Landesbibliothek, und zwar in drei verschiedenen handschriftlichen Fassungen, deren authentische vom Verfasser entziffert und in den Mittelpunkt einer wissenschaftlichen Diskussion gestellt wird. Außerdem wird auch erwähnt von seinen Bemühungen um gutes Theater, die sich in seinem Engagement für Büchner und Gogol zeigen, besonders für deren bedeutendste Stücke “Woyzeck” und “Der Revisor”.

